

한국 구법승

동아시아 불교발전의 주축

민족주의 관점 탈피 거시적 조명 필요... 경전 한역 등 업적 문화 확산의 중심

김상현 교수 '한국 구법승들의...' 국제학술대회서 주장

불법을 배우기 위해 중국을 찾았던 한국의 구법승들은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 불교문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서 구법승은 중국으로 구도 유학한 스님을 칭한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사학과·사건)는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 주최로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4월 2일 열린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 내 활동에 관한 연구'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법승을 민족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한국불교 세계화의 선구자' 내지 '중국불교 발전의 공로자'로 평가하는 것은 구법승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민족주의적 관점을 탈피해서 동아시아 불교문화 참여자로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교수는 "중국 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한국불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많은 구법승들의 사상을 한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것으로 귀

속시키려다 보면 무리가 많다"면서 원족 스님(613-696)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3살 때 출가해 15살 때 중국으로 건너가 자언학과 대립하며 유식학 연구사에 큰 획을 그었던 원족 스님이 비록 신라인이기는 했지만, 신라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신라인으로서의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도 않음에도 그가 신라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불교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이다.

민족개념을 적용해서 구법승을 평가할 때 직면하게 되는 이 같은 난점은 '동아시아불교문화권'이라는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김상현 교수의 주장이다. 당시 동아시아는 한자문화권으로 한역대장경 등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고, 불교의 최신 성과물들이 빠른 속도로 퍼져 동질적인 동아시아불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는데, 구법승이 그 중심이었다는 것.

김 교수는 "구법승들은 불교문화권의



기반이 되는 발전의 한역(漢譯)작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기여했고, 그 성과물들을 신속하게 유통시킴으로써 동아시아불교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불교문화 참여자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상 스님이나 무상 스님을 받아들인 중국 스님들이 지극한 환대로 맞

아준 일이라든가 중국에서 편찬한 고승전에 한국의 구법승은 물론 국내에서만 활동한 원효·진표 스님까지도 포함시킨 개방적인 모습에서 민족이나 국경의 구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환불교관계일천년>이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의 구법승을 면밀히 연구한 바 있는 천정푸(陳景富) 前 섬서성사회과학원장은 "구법승은 한·중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로의 불교를 풍성하게 했다"며 "구법승의 사상을 한·중 어느 한 나라의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해 김상현 교수의 주장과 맥을 같이 했다.

천정푸 前 원장은 양국의 관계에 대해 "14세기 말엽까지 해동에서 수천 명의 구법승이 중국에 들어와 활동했는데, 기록에 이름이 남은 구법승 수만 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양국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교류해왔다"며 "한중문화교류는 전면적·체계적·쌍방향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0>

인연의 과학

인연이라는 말과 같이 아름다운 말이 없다. 인(因)이 어떤 결과를 있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존재하는 조건들을 연(緣)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괴로움이 생기는 인연들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결과도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순환적인 인생관과 자연관에 있어 태어남의 시작이 태어남에 있고 태어남의 인연의 시작에 무명이 있다고 하는 12인연법은 차라리 비관적이다. 태어남 자체를 고통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니 인연을 바다의 거북이가 몇 년 만에 숨쉬러 나와서 나무 조각에 난 구멍에 걸리는

이제 인연의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2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이나 정자와 같은 생식세포 둘이 만나야 한다.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23쌍의 DNA 다발(A-a, B-b, C-c)과 같은 쌍이 23개가 풀리면서, 각 쌍에서 온 한 개 DNA로만 구성된 23개의 DNA를 가진 생식세포(한 예로 A, b, c가 23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식세포 분열은 나를 있게 한 부모의 인연의 결말이 다시 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인간의 모습은 다른 생물이든, 똑 같은 원리지만)이 23개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있다. 생식 세포가 23개를 만드는 모습은 완전히 우연이다. (A, B, C...)로 구성될 수도 있고,

"원인없는 결과 없다" 순환적 인생관 반영 인간형성은 우연히 조합된 유전자 결과

것과 같이 어렵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낙관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사람에게도 인연법이 존재하는 것일까? 먼저 사람을 구성하는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자. 나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정보는 나를 구성하는 수조 개의 세포에 한결같이 존재하는 DNA에 기록되어 있다. DNA다발은 분자들이 서로 꼬여있는 새끼줄과 같은 모습이다. 사람의 세포핵에는 23개의 DNA 다발이 들어있는데 각각은 부모에게서 한 개씩 씩 한 쌍으로 되어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23개 쌍의 DNA 다발을 읽어 내는 일이다. 요즘은 며칠 만에 이 다발에 들어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니 과학기술의 발전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a, B, c...)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생명의 탄생은 마찬가지로 우연이 조합된 배우자 알세포인 (A', b', c'...) 23개 세포와 만나서 다시 (a-A', B-b', c-C'...)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 같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던 우연히 조합된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 유전자 역시 또한 우연히 맺어진 쌍이므로, 수 억년의 진화의 역사에서 나의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를 하나쯤 갖지 않는 생물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부딪치는 사람들이 가끔은 짜증나게 만든다. 이때 우연히 웃음을 스치는 이에게서 수천만 년 만에 만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자. 갑자기 인연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도난 불교문화재 속속 회수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상·안심사 옥개석 등 8점

도난 불교문화재가 속속 회수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목포 달성사에서 도난당한 목조지장보살상을 비롯해 5점을 29일 전남 곡성 석곡터미널 부근에서 회수한 이래, 4월 2일에 대전 고신사 불상좌대물, 6일에는 전북 완주 안심사 승탑 옥개석(전북 유형문화재 제109호·사진) 2점을 되찾았다. 안심사 승탑 옥개석은 늦게 신고 패수사에 어려움이 컸으나 청주역에서 옥산가는 방향 3km 지점 옥산교 부근에 옥개석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로 회수가 가능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강신태 반장은 "수사망이 좁혀짐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절도범이 문화재를 놓고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절도범 검거 및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통도사서 춘계 학술대회 불교미술사학회 15·16일

불교미술사학회(회장 범해)는 4월 15·16일 양일에 걸쳐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안병찬 경주대 교수의 '통도사박물관 소장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출토 복장품 조사보고' 이경화 조선대 강사의 '파주 용미리마애불의 조성시기와 배경' 김미경 학예사(통도사성보박물관)의 '팔공산 동화사 대웅전삼존불상 복장품 검토' 등이 발표된다.

또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는 기초연설로 '고구려 고분벽화로 읽어보는 고려·조선 불화'를 발표한다. (055)382-1001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이종철)는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50%까지 확대하고, 출신고교화교장 및 자치단체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추천제 특별전형도 실시기로 했다. 4월 4일 밝혔다.

특별전형 대상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중요무형문화재이수자, 전국규모의 경시대회 및 공모전에서의 입상자(전국공예품대전 및 대한민국전공예대전), 영이 우수자, 한문 우수자 등이다.

2006학년도 모집 인원은 6개 학과 총 140명이며, 일반전형은 입학고사(자필 필기·고사)·학교생활기록부·심층면접 등의 성적을 반영해 선발하게 된다. 입학원서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접수한다. (041)830-7111-3

교수불자대회 8월 17~19일

만해마을서 '불교신행...' 주제

2005년도 교수불자대회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차 인원회의를 열고 학술회의 주제는 '한국문화와 불교'를, 실행연수 주제는 '불교의 실행 어떻게 할 것인가'로 확정했다.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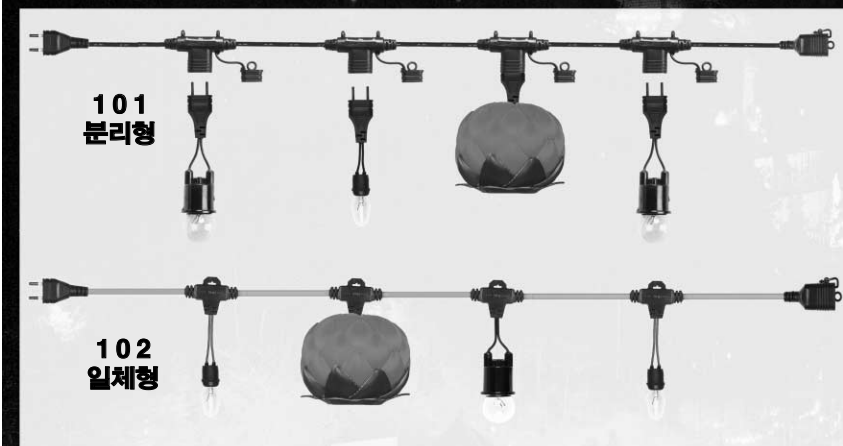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고행의 길이며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돈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4일 - 8월 5일 (33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기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에청-호탄-민풍-쿠차-루오지양-하루고-돈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수미산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사찰 연등 및 전선(별첨용) 불재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101 분리형
102 일체형

불재기업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불재기업의 (032) 582-6235 ~ 6 불재기업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등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정품)

- ▶ 불재대원 고풍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 ▶ 시달용 (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 ▶ 건전지용 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